

模寫를 통한 家傳과 傳承, 조선시대 〈南池耆老會圖〉 — 국립제주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

민길홍(閔吉泓)

- I. 서론
- II. 1629년 사적 기로회 결성과 참석자
- III. 국립제주박물관 소장본의 제작시기
- IV. 모사를 통한 가전과 전승의 의미
- V. 결론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주요 논저:

「조선후기 당시의도唐詩意圖－산수화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33·234 (2002); 「조선시대 설경산수화」, 『미술자료』 70·71(2004); 「겸재 정선의 고사 인물화」,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향산 안취준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사회평론, 2006); 「조선시대 조어도釣魚圖」, 안취준, 민길홍 편, 『조선시대 인물화』(학고재, 2009), 「文孝世子 輔養廳契屏: 1784년 문효세자와 보양관의 상견례 행사」, 『미술자료』 80(201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형록필 책가도－덕수 4832 〈책가도〉를 중심으로」, 『동원학술논문집』 제16집(2015) 등

〈南池耆老會圖〉는 1629년(인조 7) 6월 5일 李貴(1557~1633), 李好閔(1553~1634), 李惟侃(1550~1634) 등 11명의 노인이 승례문 밖에 있던 洪思黻(1555~1634)의 집에서 가졌던 사적인 모임을 화원화가 李起龍(1600~?)이 그린 계회도다.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보물 제866호) 등 총 9점이 남아 전한다.

원래 참석 예정자 12명은 68세부터 81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당일 실제 참석자는 11명이었으나, 그림은 12본이 제작되었고, 인물도 12명을 그려 넣었다. 모임 장면의 그림, 張維(1587~1638)의 발문, 참석자 명단인 座目, 화면 좌우에 적힌 李景稷(1577~1640)의 序文으로 구성되었다.

모임 당시 그려진 원본으로 추정되는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보물 제866호)을 비롯하여 현재 남아있는 여러 본 가운데,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남지기로회도〉는 참석자 중 하나였던 이유간의 8대손이었던 李奎遠(1833~1901) 제주목사 후손 가문에서 2003년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제목은 빈 자리로 남겨두었고, 사물의 위치와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착오가 보이며, 화풍상 민화에 가깝다. 본고에서는 제작 시기를 19세기 후반경으로 보았다. 또한, 모임 당시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후에도 선조의 중요한 유물이 지속적으로 모사되어 전해지고, 때로는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도 모사본이 또다른 모사본을 탄생시키는 전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가전화첩』이라는 형식으로, 명망 있는 가문에서 선조대의 중요한 업적이나 행사를 그림으로 그려 대대로 전해지게 한 예는 『愛日堂具慶帖』, 『宜寧南氏家傳畫帖』, 『大邱徐氏家傳畫帖』 등이 있다. 그런데, 여러 가문 내에서 동시에 한 작품을 지속 적으로 모사한 것은 〈남지기로회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남지기로회도의 참석자들은 후대 19세기까지 세도가문의 중추를 이루었던 인물들로, 학파와 가문의 내력을 중시하던 당시의 가전화첩 제작 문화 속에서 다른 어느 그림보다도 반복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궁중의 기로소처럼 70대가 넘는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모임이면서, 정치적 지향점과 풍류와 우애를 나누던 이들의 모임은 19세기에 이르러 어떤 행적보다 가문의 영광이 될 만 했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과거는 가문의 현재 결속과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림으로 모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남지, 기로회도, 이유간, 모사, 가전화첩

模寫를 통한 家傳과 傳承, 조선시대 〈南池耆老會圖〉

－ 국립제주박물관 소장본을 중심으로 －

민길홍(閔吉泓)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I. 서론

조선시대 송례문 밖에 위치했던 南池는 나라에서 설치한 연못으로, 연꽃이 필 무렵이면 이를 감상하려는 문사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남지기로회도〉는 1629년(인조 7) 6월 5일 李貴(1557~1633), 李好閔(1553~1634), 李惟侃(1550~1634) 등 11명의 노인이 송례문 밖에 있던 洪思黻(1555~1634)의 집에서 가졌던 사적 모임을 화원화가 李起龍(1600~?)이 그린 제회도다.¹ 관련 기록에는 ‘蓮池會’, ‘賞蓮會’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편의상 본고에서는 ‘耆老會’로 지칭한다. 참석하기로 한 12명은 68세부터 81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원래 궁중 기로소에는 70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었으나, 사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중국 香山九老會의 전통에 의거하여 68세 인물도 받아주었다. 전서체로 쓰여진 제목, 모임 장면의 그림, 張維(1587~1638)의 발문, 참석자 명단인 좌목, 화면 좌우 별지에 적힌 이유간의 아들, 李景稷(1577~1640)의 서문으로 구성되었다.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남지기로회도〉는(도 1) 참석자 중 하나였던 이유간의 8대손이었던



도 1. 작가미상, 〈남지기로회도〉, 19세기 후반 추정, 125.5×68.7cm, 지본채색, 국립제주박물관 (제주기730), 이혜은 기증

1 〈남지기로회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서문, 발문의 원문과 해석은, 위순선, 「조선시대 남지기로회도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2002) 참고.

李奎遠(1833~1901) 제주목사 후손 가문에서 2003년 기증한 것이다. 같은 행사를 기록한 발문과 서문, 좌목 등 글씨로만 이루어진 또다른 유물의 영인본(제주기747)이 함께 기증되어 1629년 남지에서 열린 모임을 후대에 여러 차례 모사했던 정황을 알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전체적인 구성은 모임 당시 그려진 원본으로 추정되는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보물 제866호)과 동일하나(도 2), 화풍과 화가의 기량은 이 그림을 19세기 후반에 모사된 지역 화사의 작품으로 추정하게 한다.

1629년 이들의 모임을 기록한 그림은 제주박물관 소장본까지 현재까지 총 9점이 확인되나, 원본으로 생각되는 그림은 1점이고 나머지는 모두 참석자의 후손 가문에 전해지는 후대의 모사본이다. 본고에서는 제주박물관 소장 〈남지기로회도〉를 이유간이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19세기 후반경에 모사된 것으로 추정하고자 하며, 선조대의 중요한 유물이 대를 거듭하면서 거듭 모사되어 모사본이 또다른 모사본을 탄생시키는 행사도의 모사와 가전 전통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1629년 사적 기로회 결성과 참석자

계회도나 기로회도의 경우, 발문이 그림 하단에 적혀 있는 예는 많으나, 이 그림처럼 서문이 그림 양쪽에 적혀 있는 예는 매우 드물다. 발문과 서문을 통해 모임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장유의 발문 가운데 아래의 내용은 남지에서 모인 정황에 대해 요약적으로 전해준다.

1629년 6월 5일, 그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잠깐 날이 개이자, 諸公이 모두 말고삐를 나란히 하고 승례문 밖 홍사효 집에 모인 뒤 함께 연못의 연꽃을 감상하였다. 이때의 좌석배치는 어디까지나 나이 차례로 하였을 뿐, 관직의 고하는 따지지 않았다. (하략)

한편, 이경직의 아들, 李正英 후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同樞公關係 資料』에 수록된 「蓮池會 始終事實」에 더욱 자세한 정황이 서술되어 다음과 같이 전한다.²

1629년 6월 5일

지난해 학반(홍사효)의 집에서 지연(池蓮)을 감상하였다. 이달 초 3일에 승지와 여러 벗들이 또한 가서 감상하고 돌아왔다. 초4일에는 학반이 서간을 보내어 연을 함께 감상하자고 하였다. 나는 지금 이질을 만나 갈 수 없다고 답하였다. 5일 아침에 또 글을 보내어 오라고 하였으나 어제와

2 윤진영, 「李惟侃(1550~1634)의 「蓮池會始終事實」과 南池耆老會圖의 傳承來歷」, 『장서각』 8집(2002. 12.), pp.55-91; 『古文書集成』 45(鎭安 程川 全州李氏 西谷 李正英 後孫家篇(Ⅱ))(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pp.74-83 참고.

같은 글로 답하였다. 오후에 이호민이 왔다는 것을 들으니 비로소 가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 비록 옛날 香山과 낙양의 모임을 여기에 비길 수 있겠는가. 나는 병으로 참여하기를
사양하였으나 가지 않았다면 평생의 한이 될 뻔했다.

1629년 6월 8일

인경의 집에 가서 술 한 잔을 마시고 학반의 집으로 내려갔다. …… 좌중은 15인이었다. …… 우리
일행은 술 한잔을 마시고 또 약봉(서성)에게 한 잔을 권하였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마치고
돌아왔는데, (하락)

여름철 연꽃 감상을 위해 여러 차례 지인들이 모이고, 함께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겼던 풍경을
그려볼 수 있다. 이 모임에서의 음주 방식으로 ‘코끼리 코[象鼻]를 기울여 술을 잔뜩 따르누나’라는
말이 장유의 발문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연잎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마시는 碧筩飲으로
생각된다.³ 연꽃이 있을 때만 행할 수 있는 흥취로 연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유한 것이었다.⁴

이유간의 일기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1628년 홍사효 집에서 연꽃을 감상한 적이 있었고,
1629년 6월 3일에도 다녀왔는데 4일에 또 홍사효로부터 함께 연꽃을 감상하자는 편지를 받았으나,
몸이 좋지 않아 갈 수 없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홍사효가 5일 아침에 다시 글을 보내어
오라고 하였고 다시 못 간다고 답하였는데, 이호민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지로 참석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6월 5일의 모임은 이틀 동안 참석을 권유했던 홍사효의 노력의 결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8일에도 모이고 29일에는 12본의 남지기로회도가 완성되었다.⁵

6월 5일 이 모임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제안
으로 시작된 모임은 평소 친목관계가 있는 이들에게로 전해져 12명에게 연락이 닿았고, 1명을
제외하고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또한, 이날 참석하지 못했던 柳舜翼(1559~1632)은 다음번 모임에
참석하며 모임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날의 모임을 그린 그림은 계획도 제작관습에 따라 불참했던 인물까지 총 12명이 나누어
가졌으며, 현재 남아있는 남지기로회도는 제작 시기는 차이가 나지만 총 9점이 알려져
있다(서울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동아대학교 박물관, 규장각, 서울 개인, 국립제주

3 큰 연잎을 놓고 술을 담은 다음 비녀로 잎을 찢어서 줄기의 구멍과 통하게 해서 마시는 것이 벽통음이다. 연잎 색깔이
푸르다 해서 ‘푸를 벽(碧)’자를 쓰는데, 연잎 줄기를 연결한 것이 코끼리 코 같다고 해서 象筩飲이라고도 부른다.

4 길지혜, 손용훈, 황기원, 『조선시대 옛글을 통한 한양도성 연지(蓮池) 일대의 문화경관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4권 제1호(2016), p.13.

5 윤진영, 앞의 논문(2002), pp.9-15.

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⁶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이유간의 아들 예조참판 이경직이 서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은 자취를 전하기 위해 그림 제작을 발의하였으며, 참석자의 성명은 이경직이 썼고, 도화에 속한 일과 그 서문은 이경직이 맡았다. 이기룡에게 그림을 맡긴 것은 이경직이었던 것이다. 서울대박물관 소장본에 그림 부분 오른쪽 아래에 ‘李起龍畫’라고 되어 있어 화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계회도나 기로회도에 화가의 이름을 적어 넣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기룡이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관서를 적어 넣었던 것은 이 모임이 공적인 기로회도가 아니라 사적인 기로회도라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석자를 열거한 좌목은 다음과 같다. 관직순이 아니라 나이순으로 적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모임에서 자리도 나이순으로 정했다고 한다.

①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이인기(李麟奇, 81세) 松溪 靑海人
② 嘉善大夫坡興君	윤동노(尹東老, 80세) 水心堂 坡平人
③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이유간(李惟侃, 80세) 愚谷 全州人
④ 輔國崇祿大夫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 77세) 五峯 延安人
⑤ 通訓大夫行工曹正郎	이 권(李 勸, 75세) 杜谷 全義人
⑥ 嘉善大夫行副護軍	홍사효(洪思黻, 75세) 石湖 南陽人
⑦ 嘉義大夫漢城府右尹	강 인(姜 網, 75세) 是庵 晉州人
⑧ 輔國崇祿大夫兵曹判書	이 귀(李 貴, 73세) 默齋 延安人
⑨ 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	서 성(徐 滄, 72세) 藥峯 達城人
⑩ 折衝將軍行司正	강 담(姜 統, 71세) 蘭谷 晉州人
⑪ 嘉義大夫漢城府左尹	유순익(柳舜翼, 71세) 芝岡 晉州人
⑫ 嘉善大夫靑平君	심 논(沈 倫, 68세) 梧窓 靑松人

사대부로 받은 품계를 기준으로 이들은 모두 정3품 이상의 인물들이었으나, 홍사효, 강담의 경우는 관직은 본인의 품계인 중2품, 정3품보다 낮은 관직인 종4품, 정7품을 제수받았다. 또한, 심논은 68세였지만 중국 향산구로회 고사를 전례로 삼아 70세가 안 되었지만 참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소 자유로운 인적 구성도 사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간취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모임은 어린 시절부터의 친분이 가장 기본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이경직이 서문에서, “우리 들은 어릴 적의 벗으로서 늙어서까지 서로를 따르며 의종게 지내는 것이 행복한 일이오”라는 이귀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유간의 행장과 묘지명에도 그가 이호민, 이귀,

6 오민주, 『朝鮮時代 耆老會圖 研究』, 고려대학교 문화재학 협동과정 미술사전공 석사학위논문(2009), pp.71-77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종이에 석판인쇄본, 1935년 인쇄, 1936년 발행)에 대해서는 박정혜, 「이경석 사계장도첩」의 회화사적 의의, 『전주씨씨(백현상공파) 기증고문서』(경기도박물관, 2003), p.343 도판5 참고.

서성, 강인 등과 젊은 시절부터 허물없이 교류하였으며 眞率會의 고사를 따라 수계회를 결성하였다고 한 바 있다. 이들 대부분이 젊었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 으며, 인조반정 이후에 국가에 크고 작게 공을 세운 서인 계열에 속한 인물이었다는 점도 모임의 구심점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한편, 발문을 쓴 장유는 어려서부터 이경석과 이웃에 살면서 많은 시를 주고 받으며 일생을 가깝게 지낸 인물로,⁸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며 당대 名文家로 유명했기 때문에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16세기 후반부터 사림파들이 집권세력으로 인정되면서 이들이 마련한 서울 세거지의 家園은 당대의 명원으로 인식되고 거기에서 각종 모임과 행사를 여는 풍조가 생겨 손님접대 관행이 확대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궁중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私家에서 더욱더 잔치와 각종 모임이 활발하게 개최되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남지기로회도〉 역시 이렇게 소유지를 시각화한 17세기 초반 私家行事圖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⁹



도 2. 이기룡, 〈남지기로회도〉, 1629년, 견본채색, 119.0×73.0cm, 견본채색, 서울대학교박물관(역1291)

Ⅲ. 국립제주박물관 소장본의 제작시기

제주박물관에 기증된 〈남지기로회도〉는 이유간의 8대손으로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이규원의 가문에서 일괄 기증한 유물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후손에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다시 모사된 사례에 해당된다. 이규원은 앞서 언급된 『동추공관계자료』의 소장이 이정영의 형제인 李長英(1610~1677)의 7대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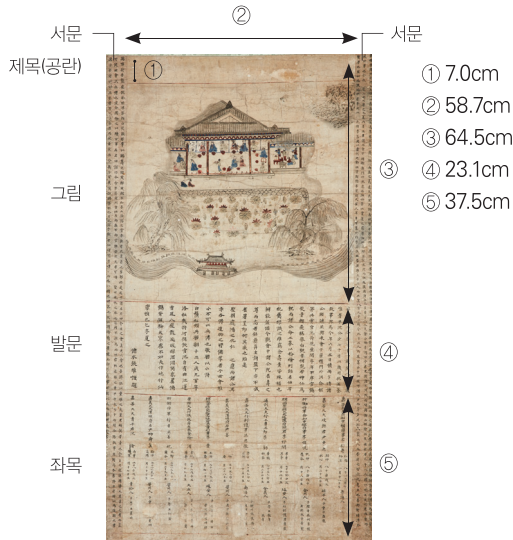
현재 조사된 남지기로회도 중 축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총 4점 가운데, 서울대박물관 소장본,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에는 ‘남지기로회도’라는 제목이 적혀 있으며, 제주박물관 소장본과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에는(도 3) 제목 자리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 살펴볼 제주박물관

7 윤진영, 앞의 논문(2002) 참고.

8 박정혜, 앞의 논문(2003), p.342 각주4 참고.

9 조규희,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06), pp.90~126.

소장본은 고려대박물관 소장본을 모본으로 했거나, 같은 본을 모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제목이 없고 공란이라는 점에 있다.¹⁰



참고 1. 도 1의 세부 크기



도 3. 작가미상, <남지기로회도>, 19세기,
지본채색, 123.0×72.6cm,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전체적인 구성이 제목, 그림, 발문, 좌목으로 구성된 것은 궁중에서 제작된 계획도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제목과 그림, 좌목 경계를 붉은 선으로 구획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양옆의 이경직의 서문은 별지에 적어서 붙였다.

연꽃을 앞에 둔 홍사효의 집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모습으로 그려져 전체 규모는 알 수 없다. 담장도 없이 대청에서 남지가 흰히 내다보이게 그렸는데, 화면 하단에 성곽과 승례문을 작고 낮게 그려넣어 연지와 홍사효 집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동시에, 시선이 모임 장면으로 집중된다. 또한 연지를 크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연꽃을 감상하러 모인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 모여든 인물만큼이나 모임의 장소 또한 중요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건물 내부에는 기둥이 5개가 세워진 큰 방에 초대받은 12명의 자리가 세팅되어 있다. 그들을 위한 12개의 개인별 상이 차려 있는데, 상 앞에 앉은 사람은 10명이고, 가운데로 나와 마주한 2명까지 총 12명이 모두 표현되었다. 사실이 날 유순익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물 숫자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좌목에도 12명이 모두

10 제목이 적혀 있지 않은 두 소장본에는 제목을 적으려고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가 공란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사 과정에서 그림의 제목을 인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공란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모사의 원본이 된 그림에 제목이 유실되어 있었을 경우, 혹은 제목을 추후에 채워넣으려고 했으나 미쳐 완성을 못했을 경우 등으로 추정 가능하다.

적혀 있고, 그림에도 12명이 표현된 것은, 유순익이 이날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정식 모임의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불참자였지만 특별하게 그림에 그려 넣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 앞쪽에 밖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붉은 색 난간이 둘러져 있는데, 이것도 서울대박물관 소장본에는 없고, 고려대박물관 소장본에 있는 표현이다. 제주박물관 소장본의 모본이 고려대박물관 소장본이거나 같은 본을 두고 두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정하게 한다.

전반적으로 화가는 기량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으며 지방 화사였을 가능성도 있다. 병풍을 두르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

들을 묘사하면서 바닥과 병풍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병풍 앞에 앉은 인물들은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듯 표현되었다. 공간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대박물관 소장본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서울대박물관 소장본에서는 자리를



도 1의 세부

비운 2명은 빈 방석을 통해 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임을 표시하였는데, 이 그림에서는 방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왼편의 방석은 아예 생략되고 상만 그렸고, 오른편의 방석은 마치 책처럼 접힌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제목을 적지 않은 점, 방석의 표현 방식, 난간의 존재 등에서 두 그림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인물과 건물, 연못 표현에서도 전반적으로 민화에서 흔히 보이는 투박한 표현을 볼 수 있다. 인물의 얼굴이 회색인 것은, 아마도 흰색을 내기 위해 납이 주성분인 ‘연백’을 사용한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흑변한 것으로 보인다.

승례문을 묘사한 것도 상당히 유사한데,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에서는 목조를 표현한 갈색 부분이 제주박물관 소장본에서는 목조구조의 여백에 채색이 가해져 차이가 날 뿐,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와 묘사에서 매우 유사하다. 성곽 표현에서도 공간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승례문과 공간상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다.

언제 중모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과 전반적으로 화풍상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을 일단 감안하고, 원 소장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규원의 생몰년을 두 번째로 참고할 때, 제주박물관 소장 <남지기로회도>는 이규원이 활동하였던 19세기 후반에 중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 1의 세부, 송례문 부분



도 3의 세부, 송례문 부분

IV. 모사를 통한 가전과 전승의 의미

개인에 있어서 이러한 기로회도 제작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기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인맥과 특권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자신들의 명예로운 제회의 면모가 후손 대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등 그림 안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시대가 내려가면서 거들 중모되는 전통 역시, 선대에서의 영광이 당대와 후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실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대에 어떤 과정에서 전해지고 모사되었는지는 朴世堂(1629~1703), 李匡師(1705~1777), 徐鼎輔(1762~1832)가 순차적으로 쓴 후대의 발문과 기문을 통해 알 수 있다.¹¹⁾



도 4. 작가미상, <남지기로회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1호,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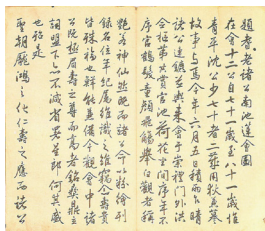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된 개인소장 <남지기로회도>에는(도 4) 장유와 이경직의 서문 외에도 박세당의 기문이 추가되어 있다. 박세당은 이경직의 신도비명을 찬술한 인물이기도 하다. 먼저, 박세당은 모임이 있었던 1629년으로부터 60년이 지난 1692년, 애초의 모임 참석자였던 李麟奇(1549~1631)의 5대손 李構(1667~1740)로부터 집안에 가전되어 온 남지기로회도에 발문을 부탁받고 「書南池耆老會圖後」를 썼다. 그 글에서 당시 사대부들의 세태를 비판하며 그림 속 선조들의 우애와 교유에 대한 찬사를 하였던 점이 주목된다. 박세당이 발문을 부탁받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11 세 명의 발문, 기문에 대해서는 윤진영, 앞의 논문(200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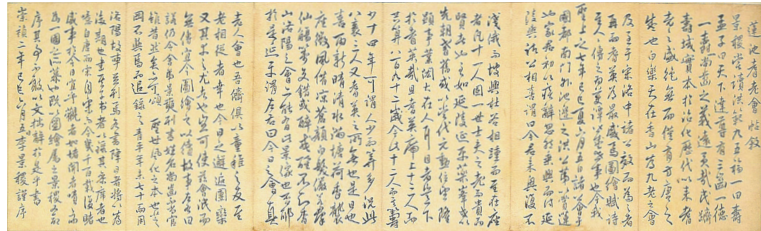
(전략) 이구는 이인기의 5세손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보여 주며 말하기를, “당시에는 이 그림과 똑같은 것이 모두 12본이어서 제공들이 모두 하나씩 자기 집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喪亂을 겪는 바람에 11개는 모두 없어졌고, 저희 집에 보관하던 것만 다행히 유실되지 않아 현재 이 그림만 유일하게 세상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그림에 발문을 써 주십시오.” 하기에 이 글을 써서 돌려준다.¹²

이미 나머지 11본은 모두 없어졌다고 한 것으로 보아, 현재 남아 전하고 있으며 당시 원본으로 생각되는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본이 박세당이 발문을 써준 바로 그 그림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그림에 그 발문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별지에 써준 것인지, 정확하게는 파악하기 어렵다.

70년이 흐른 뒤, 이유간의 6세손이었던 이광사도 발문을 쓰게 되었다. 이유간 관련자료인 『동추공관계자료』에는 1768년(영조 44) 이유간의 5대손인 이광사에게 조카李世翊(1718~1775)이 남지기로회의 좌목과 10여 폭의 耆老帖에 이경직의 서문과 장위, 박세당의 발문을 써서 가져와 이광사가 발문을 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¹³ 경기도박물관 소장 〈남지기로회첩〉에는 현재 좌목과 이경직의 서문, 장유, 박세당, 이광사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고 그림은 없다(도 5, 도 6).¹⁴ 이광사의 글에 따르면, 이세익이 10여 폭으로 꾸며 가지고 와 발문을 요청하니 유배지에서 선대의 성대하고 아름다운 자취를 서술함에 감격하며 썼다고 밝혔다. 10여 폭의 첩이라고 했지만 그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 중에 기로회 장면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도 5. <남지기로회첩>, 17세기.
29.5×17.5cm, 경기도박물관 소장



도 6. 이광사, <연지기로회첩서>, 1708년, 29.0×100.0cm, 경기도박물관 소장

한편, 규장각에는 1629년 모임의 참석자였던 徐湑(1558~1631)의 후손가에 전해오던 모사본에 대해 1828년에 서정보가 가전화첩을 만들면서 쓴 「南池耆老宴圖記」가 포함되어 전한다. 이를 통해 제목과 그림만 남아있는 서정보 소장본(모사본)에, 당시 장유 후손가에서 구입하여 소장했던

12 『西溪先生集』 卷之八 題跋 十四首, 「書南池耆老會圖後」李構松溪之五世孫 携此圖來示曰 當時如圖者共十二 諸公皆藏其一於家中 經喪亂其十一皆已亡 獨藏構家者幸不失 今惟此圖在世間耳 請有以記之書此 以還之.

13 윤진영, 앞의 논문(2002), p.74 참고.

14 『전주이씨(백현상공파) 기증고문서』(경기도박물관, 2003), 도 152.

〈남지기로회도〉를 보고 좌목과 서, 발문을 추가하여 족자로 꾸몄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에는 장유, 서성 두 집안에 가전되는 그림이 모두 모사본이었다는 사실과, 모사본을 보고 또다시 모사하여 가전화첩을 만들었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이다. 1828년, 서정보는 기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전략) 집안에 이 족자가 있었다. 모사본이었다. 다만 그림과 篆額 6자[제목]만 있었다. 1811년에 이 모임의 좌목을 家承 가운데서 찾아내어 그림 아래에 쓰게 하였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817년 장유의 후손이 우리 숙부의 집에서 구본을 구입하였는데, 숙부가 그것을 펴보고는 기이하게 여겨 사람을 보내 빌려와 여러 번 감상하니 감회와 흥미를 이길 수 없었다. 숙부가 나에게 명하여 서문, 발문을 가장본에 옮겨 쓰게 하였다. (중략) 서문을 읽었는데 이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흥미하는 마음에 그림을 어루만졌다. 여러 종친들이 말하기를 '만약 하나의 책자로 만들지 않는다면 오래도록 후손에게 전할 길이 없다. (중략) 참의공사연도와 함께 이 그림을 앞뒤로 합본하여 권을 만드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모두 동의하여 먼저 사연도를 모사하고 다음에 남지도를 모사하였으며, (하략)'¹⁵

대구서씨 가문에서는 서정보 이후에도 1873년, 徐丙協 등이 또다시 이모했던 것으로 보이며, 1930년대에는 인쇄본 형태로 출판되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⁶ 한편, 모사를 통한 가전의 전통을 보여주는 또다른 유물로, 이규원 후손 가문에서 제주박물관에 기증한 유물 가운데, 그림 없이 좌목, 서문, 발문만 남아있는 〈연지기로회첩〉(제주기747)이 있다(도 7).¹⁷ 그동안 이규원 집안 선조인 이광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내용은 이광사의 발문이 아니며 경기도박물관 〈남지기로회첩〉에 실린 이광사 필적과 비교해 보아도 다르다. 흘림이 강한 초서체이며, 원본 혹은 모사본을 복제한 영인본이다. 이러한 모사를 통한 가전 정황을 보면, 원본 12점 중 다 없어지고 1점만 남았을 때 모사본이 탄생하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모사본을 만들고, 다시 그 후 어떤 분이 모본이 되어 다시 모사하고 그렇게 대를 이어 가전되다가 근대기에는 출판물의 형태로 인쇄되기까지 300년간 전해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파와 가문의 내력을 중시하던 당시 가전화첩 제작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가전화첩 문화 가운데에서도 매우 특별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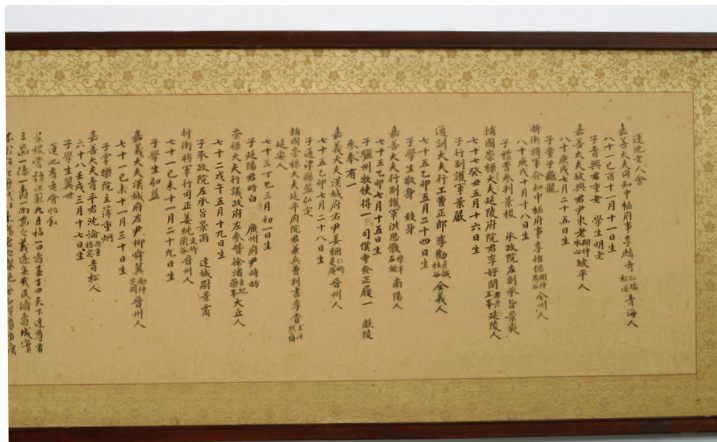
15 윤진영, 앞의 논문(2002), pp.22-23.

16 박정혜, 앞의 논문(2003), p.343 도판5 참고.

17 『19세기말 제주의 계엄사령관 察里使 李奎遠』(국립제주박물관, 2004), p.102.



도 7. 작가미상, 〈연지기로회첩〉 영인본, 36.0×154.0cm, 국립제주박물관(제주기747), 이해은 기증



도 7의 세부

V. 결론

모임 당시 그려진 원본으로 추정되는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보물 제866호)을 비롯하여 현재 남아있는 여러 본 가운데,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남지기로회도〉는 참석자 중 하나였던 이유간의 8대손이었던 이규원 제주목사 후손 가문에서 2003년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기증 직후 특별전에 소개된 2004년 이후로 본고에서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본과 마찬가지로, 제목은 빈 자리로 남겨두었으며, 모사 과정에서 사물의 위치와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착오가 보이며, 화풍상 민화에 가깝다. 본고에서는 제작 시기를 19세기 후반경으로 보았고, 남아있는 그림과 전해지는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모임 당시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후에도, 선조의 중요한 유물이 지속적으로 모사되어 전해지고 때로는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도 모사본이 또다른 모사본을 탄생시키는 전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가전화첩』이라는 형식으로, 명망있는 가문에서 길이 길이 간직할 선조의 업적이나 행사를 그림으로 그려 대대로 전해지게 한 예는 『愛日堂具慶帖』, 『宜寧南氏家傳畫帖』, 『大邱徐氏家傳畫帖』 등이 있다. 그런데, 여러 가문 내에서 동시 에 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모사한 것은 〈남지기로회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장수를 누리며 높은 관직을 겸비한 구성원들의 모임을 그림으로 그렸으며, 조선시대 최고의 덕목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壽, 福, 祿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수성, 복성, 녹성을 의인화한 〈三星圖〉가 그려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로회도는 또 다른 의미의 삼성도였고, 아울러 그 대상이 집안의 조상이었다는 것이 가문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남지기로회도의 참석자들은 그 후대 19세기까지 세도가문의 중추를 이루었던 인물들로, 학파와 가문의 내력을 중시하던 당시의 가전화첩 제작 문화 속에서 다른 어느 그림보다도 더 반복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궁중의 기로소처럼 70대가 넘는 전현직 고위관료들의 모임이면서, 정치적 지향점과 풍류와 우애를 나누던 이들의 모임은 19세기에 이르러 어떤 행적보다 귀감이 될 만 했고, 가문의 영광적 순간이라는 과거는 가문의 현재 결속과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술논문】

길지혜, 손용훈, 황기원, 「조선시대 옛글을 통한 한양도성 연지(蓮池) 일대의 문화경관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4권 제1호, 2016.

박정혜, 「이경석 사궐장도첩」의 회화사적 의의, 『전주이씨(백헌상공파) 기증고문서』, 경기도박물관, 2003.

오민주, 『朝鮮時代 耆老會圖 研究』, 고려대학교 문화재학 협동과정 미술사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위순선, 「조선시대 남지기로회도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윤진영, 「李惟侃(1550~1634)의 「蓮池會始終事實」과 南池耆老會圖의 傳承來歷」, 『장서각』 8집, 2002. 12.

조규희, 『조선시대 별서도 연구』,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전시도록】

『19세기말 제주의 계엄사령관 察里使 李奎遠』, 국립제주박물관, 2004.

『무병장수의 별 노인성, 제주를 비추다』, 국립제주박물관, 2019.

Symbol of Family Tradition and Transmission through Copying: Focused on *Painting of a Gathering of Venerable Officials* by *Namji Pond* in the Jeju National Museum

Min Kilhong*

Painting of a Gathering of Venerable Officials by *Namji Pond* produced by the court painter Yi Gi-ryong (1600–?) depicts a private gathering of eleven senior men, including Yi Gwi (1557–1633), Yi Ho-min (1553–1634), and Yi Yu-gan (1550–1734), at the house of Hong Sa-hyo (1555–1634) outside the Sungnyemun Gate of Seoul on the fifth day of the sixth lunar month of 1629. Nine copies of this painting, including one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remain today.

Twelve people ranging in age from sixty-eight to eighty-one were invited to this gathering, but eleven eventually attended. Only retired senior officials over age of seventy could join the Girosu (Hall of Venerable Officials). However, since this was a private gathering, sixty-eight-year-olds were allowed to take part, a reflection of the tradition of the Gathering of Nine Elders on Mount Xiangshan in China. This painting includes a title written in seal script (in some of the nine copies the space for the title is left blank), a depiction of the gathering, a colophon by Jang Yu (1587–1638), a list of attendees, and a preface by Yi Gyeong-jik (1577–1640), the son of Yi Yu-gan, on separate sheets are attached at the left and right borders of the painting. Although eleven people actually joined the gathering, the painting depicts all twelve invitees.

Among the several existing copies of *Painting of a Gathering of Venerable Officials* by *Namji Pond*, the version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Treasure No. 866) is presumed to be the original produced at the time of the gathering. The copy in the collection of the Jeju National Museum was donated in 2003 by descendants of the Jeju county magistrate Yi Gyu-won (1833–1901), an eighth-generation linear descendant of Yi Yu-gan, who attended the gathering. Soon after the painting was donated, it was displayed at a special exhibition. This paper attempts to shed new light

* Associate Curator, Jeonju National Museum

on this painting. The space for the title in this copy is left blank, as can also be seen in the version in the Korea University Museum. The Jeju copy fails to realistically position and spatially perceive objects, reflecting the original. The painting style is similar to that of folk painting. In this paper, I argue that *Painting of a Gathering of Venerable Officials by Namji Pond* in the Jeju National Museum was copied at some point around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gether with the other extant copies and related records, this painting carrie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embodies the tradition of continuously copying precious antiquities passed down for more than 200 years and reproducing duplicates of missing originals.

Prominent families produced gajeon hwacheop (family biography painting albums) illustrating the great achievements of their ancestors and major family events. These albums wer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xamples include *Album for the Parents of Aeildang*, *Painting Album of the Family Biography of the Nam Clan in Uiryeong*, and *Painting Album of the Family Biography of the Seo Clan in Daegu*. However, *Painting of a Gathering of Venerable Officials by Namji Pond* is the sole example of a work copied repeatedly by several families. The attendees of the gathering of seniors at Namji Pond belonged to families that remained influential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Given the cultural context of powerful families producing family biography painting albums, the version at the Jeju National Museum must have been copied more repeatedly than any other painting. At the time, family histories and schools of thought were paramount. Thus, the gathering in 1629 was not only a get-together for active and retired high-ranking officials over the age of seventy, like the Giroso, but a meeting of those who shared political opinions and tastes in the arts and cultivated mutual friendships. By the nineteenth century, such gatherings were regarded by the families of their attendees as highly honorable. Accordingly, this glorious and honorable moment from the past was continuously painted to support family bonding and promote the families' future.

Keywords: Namji Pond, Painting of a Gathering of Venerable Officials, Yi Yu-gan, Copy, Family Biography Painting Album